

118. 구주 강림(4)

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,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

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

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, 못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

너는 여호와와 입을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

너는 또 여호와와 손의 아름다운 관,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(사 62:1-3)

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

불이 쉴새를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

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 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

(다같이) 주 외에는 자기를 양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(사 64:1-4)